1. 공연[연극] 실적을 제출하실 때 유의사항

공연정보(공연명·세부장르·공연기간(연/월/일)·공연장소·공연성격· 관람료·러닝타임 및 주최·주관), 참여정보(신청자명, 신청자 역할 등)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Ⅱ. 공연[연극] 실적 제출자료 예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공연포스터·리플릿·프로그램북·포털공연정보·플레이DB·공연 예매사이트 등에서 공연정보 및 참여정보가 확인 가능한 자료 일체

* 계약서·참여확인서·경력증명서(확인서) 만으로는 참여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스터

공동창작 / 연출 김수정

2021,08,21,(토) - 2021,08,29,(일) 평일 7시, 주말 3시, 월 공연 없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신청자명/역할 출연 강주회 고용선 김보경 남호성 민현기 박미르 백혜경 손종복 이강호 이재웅 정우진 홍은표

공연명

개최정보 [년/월/일,장소]

주최/주관, 러닝타임, 관람료, 스텝

2021,08,21,(토) - 2021,08,29,(일) 평일 7시, 주말 3시, 월 공연 없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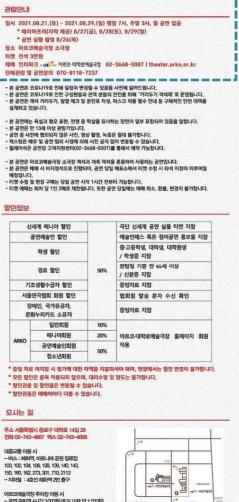
출연 강주희 고용선 김보경 남호성 민헌기 박미르 백혜경 손종복 이강호 이재웅 정우진 흥은표

리플릿·프로그램북(전체)

공연명, 공연일시, 공연장소, 주최/주관, 러닝타임, 관람료



신청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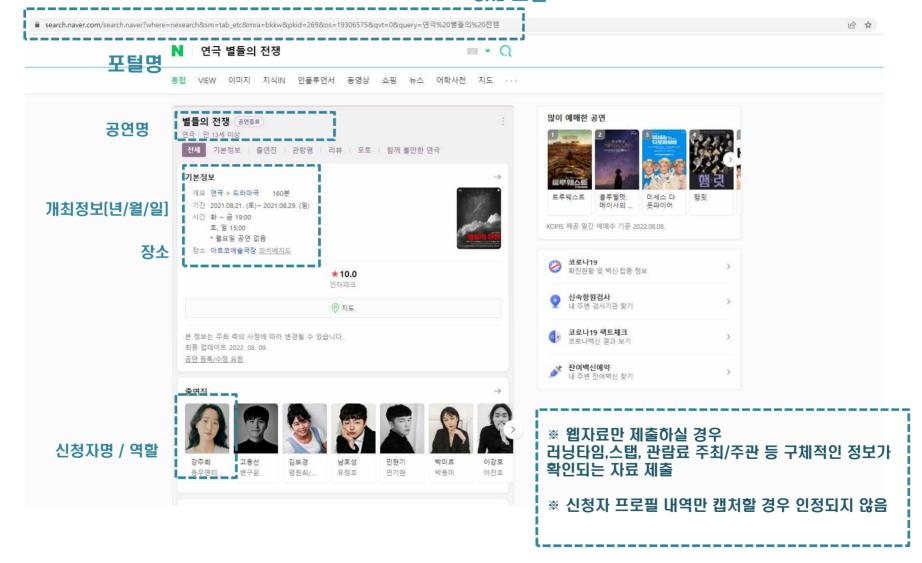
-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할인 - 주차전이 현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작한니다.





포털 공연 정보

URL 포함



플레이디비

개최정보 [년/월/일, 장소] 공연명, 러닝타임 등





주최,주관 / 스탭

| 국내 Creative Team | | 대본 | 익수점. | 전물 |
|------------------|--------|------------------------------------|--------------------------|----|
| | | 연출 | 길수정 | |
| | | 돌악감독 | 이물구 | |
| | | 무대디자인 | 솔 지인 | |
| | | 조멸디자민 | 문하인 | |
| | | 의살디자인 물활수퍼바이저 조멸수퍼바이저 조면총 | 김모유 한사빈 고주업 조가회 | |
| | | | | |
| | | | | |
| 스테프 | | 무대감독 | 전물 | |
| 말체 | | 돌보마케틸 | 서민지, | |
| 제작사 | | | | |
| 주최 | 극단 신세계 | | | |
| 本書 | 글단 신세계 | | | |

공연예매 사이트



[선택추가] 언론매체 보도자료



NewDaily



피플/인터뷰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사건 무대로...연극 '별들의 전쟁

국단 산세계 신작, 오는 21~29일 아르코예술국장 소극장 공연

0 8 4 문화 입력 2021-08-05 07:49 | 수정 2021-08-05 07:49

기자명 / 보도일



▲ 연극 '병통의 건강' 포스타 오근다 신세계

한 중인을 바탕으로 창작됐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진 중인들이 재판에 출석해 피해 당사국이자 가해당사국의 자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경부고속도로를 있게 한 경제성장의 원동력, 강대국들의 이냄대 립 속에 희생된 아픔의 역사, 그냥 지나쳤던 과거의 이야기 등 베트남전쟁의 다양한 기억과 마주하게 된다.

개최정보



공연은 관객을 재판의 최종 팽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배심원'으로 초대한다. 원고는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사건의 피해자 용우엔티뚱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법정은 만사·형사재판의 형식을 융합해 선보이며, 관객은 유·무죄를 직접 판단한다.

국단 신세계는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에 대한 날선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며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 주변인들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억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고 밝혔다.

연극 '벨들의 전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사업 '제대트리블 프로젝트' 3탄 이다.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대표가 연출을 맡고 배우 강주의 고용선 김 보장님호성· 민헌가박미르 백예강 순중복 이강재 이제용 정우진 용은표 등이 출연한다.



산성마 기자

mistery37@hanmail.net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보도자를 및 기시제보 press@rewdaily.co.kr

[자유연주시항경제의 화수관 - 뉴데일러 neuda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밀리뉴스 - 부단현재, 재배포 균지